

홍미진진 공주

2026.09.

Vol. 378



제267회 임시회 개최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공주시 밤·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총 18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 3일부터 5일까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6일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심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7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제1차 공주시 밤·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11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이범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 업무계획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제10대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장 중심 의회, 상생으로 함께하고 정책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밤·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공주시의회는 박미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8월 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밤·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밤나무 노령화,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밤 생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밤·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임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은 물론 공주시의 밤·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내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8. 31.(월) ~ 9. 9.(수) / 10일간
장소: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041-840-8015

주요내용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의원 5분 발언



구본길 의원
가 선거구

(유구읍,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제10대 공주시의회 첫 의정 과제,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 재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출발한 10대 공주시의회가 시민들께 증명해야 할 최우선적인 모습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실천’의 행동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실천 과제로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하고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제 추석 명절은 설렘과 풍요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즉,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기가 민생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인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적성 지원금 투입 시 전체 예산의 30~40%에 달하는 금액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히 ‘추석’을 목전에 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가 누릴 선순환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유발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재원을 투입하는 결단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공모사업, 선정이 성과가 되어서는 안돼

공모사업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우리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중요한 수단이다.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책임감은 한순간도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종료된 이후 발전적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공주시의 재정 부담은 계속 이어진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사후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공모사업의 제도 실효성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전체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규명하고 검증된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공모사업 선정 건수를 부서의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하여 단순 선정 건수가 아닌, 사업 종료 후 시민 편익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를 평가해야 한다.

넷째,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역할을 선정·취합 등의 단순 ‘조정자’가 아닌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시작할 때의 그 열정, 그리고 성과를 위한 진정한 노력과 끝난 뒤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공주시가 지난 공모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용성 의원
라 선거구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오재원 의원

나 선거구

(의당면, 정안면, 신관동, 월송동)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안전 드롭존에 대한 제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엔 곳곳에 위험과 불편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의 버스 수요 증폭에 따라 학생들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둘째, 현재 BRT 노선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초와 신월초, 월송동을 거쳐 세종시로 이어진다. BRT가 본격 운행되면 가변차로와 맞닿은 학교 주변은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에 그야말로 혼잡을 넘어 아수라장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주시와 관련기관은 신월초등학교를 시범 대상으로 ‘학생안전 드롭존’을 구축하여 완성된 드롭존과 학교를 연결하는 안심 통행로를 설치해 줄 것과 등·하교 시간 때의 버스 배차간격을 이용수요에 맞춰 증차할 것, 그리고 등·하교 전용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 배차 간격 등 학교 주변 교통체계 전반을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교육도시이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주시의 참모습일 것이다. 오늘의 제안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미옥 의원

다 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글로벌대학 성과평가 최하위 D등급”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졸속 통합 즉각 중단해야

10만 공주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와 엄중한 우려를 안고 글로벌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졸속 통합 논의 종단을 촉구한다. 작금의 졸속 통합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이 통합은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와 학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밀실 야합이다. 공주시 전역에 내걸린 수많은 통합 반대 현수막이 말해주듯,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일방적 통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둘째, 글로벌대학 성과 평가 최하위 D등급 선정은 졸속 통합 추진의 성적표이다. 통합대학의 교명,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계속되는 이견에 당초 5월 예정이었던 통합사업계획서는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

셋째,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조차 없는 거점국립대로의 흡수 통합은 곧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부산대와 통합 후 밀양대가 맞이한 입학정원 반토막, 핵심 학과 이전 등이 이 결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글로벌대학 평가 D등급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밀실·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주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임현구 의원
비례대표

공주 5일장, 주말 특장터와 결합하여 생활인구의 활력을 더해야

우리 공주시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주 산성시장의 5일장 유지 및 주말 특화장터 병행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주에 더 오래 머물고 소비하게 만드는 핵심 고리는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산성시장의 5일장은 1일과 6일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과 장날의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주말 관광객들은 전통시장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기존 1·6일 5일장은 온전히 유지하여 상인과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주말에는 관광객을 겨냥한 ‘주말 특화 장터’를 함께 운영하는 이른바 ‘듀얼(Dual) 시스템’을 제안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평일 5일장으로 어르신들의 생활권을 든든히 보호하고, 주말에는 플리마켓, 농부시장, 청년 상인 장터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주말 특화장터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주밤, 알밤한우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푸드존을 조성하고, 버스킹과 야시장 등 공주만의 독창적인 ‘킬러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산성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주말 장터 쿠폰 발행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5일장의 역사성과 주말장의 활력이 산성시장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산성시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시민예술공간, ‘공주, 천년의 뿌리 공주시목 느티나무’ 전시회 개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예술사진반 작품 전시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는 오는 9월 29일까지 시민예술공간에서 “공주, 천년의 뿌리 공주시목(公州市木) 느티나무”를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예술사진반(단체명: 포토숨) 회원 13명이 공주시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의 2년간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으로, 웅장한 느티나무를 통해 앞으로도 굳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시민들은 회원들이 정성 들여 촬영한 보호수 사진작품들을 감상하며, 우리시가 품은 자연 유산에 대해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토숨 이광수 회장은 “우리시가 가진 보호수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주시목 느티나무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공주시가 가진 자연·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의회는 “시민예술공간은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의회를 찾는 주민들이 웅장한 느티나무 사진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토숨은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 백제문화제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주제로 공모전을 출품하고 매 2년마다 테마를 정하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① 유구읍 문금리 ② 사곡면 호계리 ③ 사곡면 해월리 ④ 유구읍 명곡리

